

콩치과메기에 대한 선호도 및 섭취빈도에 관한 연구

조영대[†] · 김정애* · 오승희

*포항과메기연구소, 포항1대학

The Study of the Taste and the Intake-Frequency for Kwamaegi - Centering around Kyungbuk Regions -

Yeoung-Dae Cho[†], Jung-Ae Kim* and Seung-Hee Oh

**Pohang Kwamaegi Institute, Pohang 791-940, Korea*

Dept. of Food and Nutrition, Pohang College, Pohang 791-940, Korea

Abstract

We made a survey of the pattern of dietary life, the taste and the intake-frequency for Kwamaegi in Kyungbuk province. And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

1. Flavor(65.2%), nutritive value(14.6%), cleanliness(14.3%), price(4.3%) and calorie(0.7%) were considered to select food in that order.
2. The younger, the more they preferred foreign food to Korean food and the older, the more they preferred Korea food to foreign food.
3. Most of people(91.4%) answered positively to Kwamaegi and had a high preference of Kwamaegi. On most occasions, they were inclined to eat Kwamaegi as the side-dish(71.1%) served with drink.
4. Most of men(61.1%) have eaten 3~10 Kwamaegis at a table, but most of women(53.7%) have eaten 1~2 Kwamaegis at a table.

Key words: kwamaegi, taste, intake-frequency.

서 론

한민족의 식생활은 그들이 살고 있는 자연환경과 사회환경 속에서 오랜 기간을 걸쳐 형성된 하나의 문화유산이다. 또한 우리의 고유한 자연환경과 역사 속에서 배양되고 전승되어온 전통식품은 합리적인 조리 및 건강지향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가치가 재인식됨에 비추어 계속 보존되어야 할 것이다^{1~2)}. 전통식품의 하나로서 과메기는 포항을 중심으로 한 경북 동해안 일대에서 콩치와 청어 등의 등푸른 생선을 겨울에 자연동결 건조하여 만들어 왔다. 최근 들어 콩치과메기가 기능성 식품으로서 각광을 받기 시작함으로 오래 전부터 전통식품의 하나로서 그 명맥을 꾸준히 유지 해온 과메기의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과메기는 원래 청어를 등절기에 자연건조하여 만

들었으나, 1960년부터 청어의 어획량의 급격한 감소와 기온의 상승에 따른 건조조건 불일치로 근간에는 청어보다 건조가 용이한 콩치를 주된 과메기의 어종으로 사용되고 있다³⁾.

콩치에는 고도의 불포화 지방산(eicosapentaenoic acid, docosahexaenoic acid) 함량이 높아 심근경색, 뇌경색, 고혈압 등 주요 성인병 예방의 생리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⁴⁾고 한다. 또한 어린이 성장촉진이나 두뇌발달과 여성피부에 효과가 있는 성분이 다량 들어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⁵⁾.

이러한 콩치과메기는 독특한 맛과 풍부한 영양성분 때문에 경북 일원은 물론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수요와 관심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때 콩치과메기 소비자의 과메기 소비행태에 관심을 쏟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과메기 소비자에 대

[†] Corresponding author : Yeoung-Dae Cho

한 연구는 포항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영대와 김정애(1999)의 연구⁶⁾와 조 등(2000)의 연구⁷⁾를 제외하고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를 보다 확장하여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식생활과 콩치과메기의 기호도 및 섭취빈도를 조사함으로써 경북지역 주민의 식생활 행동을 살펴보고 아울러 포항 과메기의 품질향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조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1999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6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602부를 본 조사연구의 자료로 이용되었다.

2. 조사내용과 방법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식품영양학, 조리학, 행동과학분야의 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후 조사에 사용하였다. 일반적 사항과 과메기에 대한 기호도와 섭취빈도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인 사항은 성별, 연령, 학력, 가족유형, 주거형태, 거주 지역 등이다. 또한 조사 대상자의 식생활을 알아보기 위해 음식선택시 고려하여야 할 점과 외식시 선호음식을 조사하였으며, 과메기의 선호도, 먹는 때, 과메기의 1회 먹는 양을 조사하였다.

3. 자료 처리 및 분석방법

조사 자료는 SPSS PC⁺ 8.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처리 방법은 각 항목에 대한 빈도, 백분율을 구하였고, 변수간의 유의성 검증은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학력, 가족유형, 주거형태, 거주지역 등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나 있다.

조사대상 주민들의 성별분포는 남자가 346명(57.5%), 여자 256명(42.5%)으로 남자주민이 조금 많다. 연령별 분포는 21~30세 이하(27.2%)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31~40세 이하(23.8%), 41~50세

이하(20.1%) 순이다. 연령별로 대부분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교육 정도로는 고졸 이상이 82.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가족유형별로는 핵가족이 86.5%이며 확대가족이 13.0%이다.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45.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개인주택으로 39.7%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도시거주가 77.2%를 차지하였고, 나머지는 농촌이 14.3%, 어촌이 6.0%였다.

2. 음식 선택시 고려점

음식선택시 고려하는 사항은 Table 2와 같이 조사대상 주민의 65.2%가 맛으로 음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영양가(14.6%), 청결성(14.3%), 가격(4.3%), 칼로리(0.7%) 순으로 나타났다($p < .001$).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맛(72.7%)을 가장 선호하고, 청결성(13.5%), 영양가(7.0%), 가격(5.9%), 칼로리(0.6%), 기타(0.3%)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 역시 맛(54.6%)을 가장 선호하나, 남자와 달리 영양가(25.4%)에도 음식 선택시 고려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자가 남자와 달리 자신의 다이어트나 가족건강을 위해서 항상 식품의 영양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1~30세 이하 주민이 맛으로 80.6%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이 41~50세 이하(68.1%), 31~40세 이하(63.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영양가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51세 이상 주민(64.8%)은 건강유지와 밀접한 영양가에 관심을 두고 음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결성의 측면은 31~40세 이하 주민(29.8%)이 가장 관심이 많으며, 51세 이상 주민(3.4%)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력별에 있어 대졸(75.9%)이 맛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영양가는 기타, 가격은 현재 대학재학중인 학생(7.5%)이 경제적인 측면을 가장 높게 고려하고 있으며, 청결성은 대학원졸(40.0%)이 가장 높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가족 유형별로는 확대가족이 맛을 가장 선호(84.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핵가족들은 맛(63.1%) 뿐만 아니라 영양가(15.9%)와 청결성(15.0%)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주거형태로는 개인주택에 주거하는 주민이 맛(81.4%)을 가장 선호하며, 연립주택 주거하는 주민은 영양가(77.5%)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아파트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	Group	Responses	Percentage
Sex	Male	346	57.5
	Female	256	42.5
Age(years)	Under20	86	14.3
	21~30	164	27.2
	31~40	143	23.8
	41~50	121	20.1
	Over 51	88	14.6
Education	High school	218	36.2
	In University	191	31.7
	University	83	13.8
	Graduate school	5	8
	Others	102	16.9
	No response	3	0.5
Type of family	Unclear family	521	6.58
	Expanded family	78	13.0
	No response	3	0.5
Type of house	Apartment	274	45.5
	Separate	239	39.7
	Tenement	71	11.8
	Others	18	3.0
Residential district	City	465	77.2
	Fishing village	36	6.0
	Farm village	86	14.3
	Others	14	2.3
	No response	1	0.2
Total 602(100.0)			

주거하는 주민은 맛(64.9%), 다음으로 청결성(23.6%)을 음식선택시에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거주지역별로는 농촌 거주주민이 맛(78.8%)을 가장 선호하며, 어촌주민 역시 맛(50.0%)을 가장 선호하나 그 다음으로 청결성(33.3%)에 보다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거주지역보다 어촌은 식중독 등 음식취급 부주의에 따른 위험의 정보를 상시 접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외식시 선호음식

외식시 선호음식을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성별에 있어 남(81.5%), 여(78.2%) 모두 한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특히 여자는 양식(11.5%)을 선호하였으며, 남자는 한식 외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여기서 양식이란 일반적으로 분식 집이나 서민층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 있는 저가의 돈가스(포크커틀릿)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51세 이상이 한식(95.5%)을 가장 선호하는 음식으로 응답하였으며, 20세 이하층이 한식을 가장 낮게 선호(55.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식의 경우, 이와 반대로 20세 이하층(34.9%)이 가장 많이 선호하며, 51세 이상이 가장 낮게 선호(1.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학력별로는 기타 즉 고졸 이하가 가장 한식(95.0%)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식은 대학원졸(20.0%), 대학재학생(18.3%)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가족유형별로는 핵가족이 확대가족보다 한식과 분식을 선호하며, 확대가족은 핵가족보

Table 2. Dietary life behavior by subjects(considered to select food)

Variable	Flavor	Nutritive value	Price	Cleanliness	Calorie	Others	Total
Sex							
Male	248(72.7)	24(7.0)	20(5.9)	46(13.5)	2(.6)	1(.3)	341(100.0)
Female	131(54.6)	61(25.4)	5(2.1)	37(15.4)	2(.8)	4(1.7)	240(100.0)
Total	379(65.2)	85(14.6)	25(4.3)	83(14.3)	4(.7)	5(.9)	581(100.0)
$\chi^2(df) = 47.890(5), p = .000$							
Age							
Under 21	57(53.1)	3(3.8)	6(7.7)	10(12.8)	1(1.3)	1(1.3)	78(100.0)
21~30	125(80.6)	5(3.2)	9(5.8)	12(7.7)	3(1.9)	1(.6)	155(100.0)
31~41	89(63.1)	8(5.7)	2(1.4)	42(29.8)			141(100.0)
41~50	81(68.1)	12(10.1)	7(5.9)	16(13.4)		3(2.5)	119(100.0)
Over 51	27(30.7)	57(64.8)	1(1.1)	3(3.4)			88(100.0)
Total	379(65.2)	85(14.6)	25(4.3)	83(14.3)	4(.7)	5(.9)	581(100.0)
$\chi^2(df) = 259.869(20), p = .000$							
Education							
High school	160(74.4)	16(7.4)	8(3.7)	28(13.0)	1(.5)	2(.9)	215(100.0)
In University	129(74.6)	6(3.5)	13(7.5)	22(12.7)	3(1.7)	2(.9)	173(100.0)
University	63(75.9)	5(6.0)	2(2.4)	10(12.0)		3(3.6)	83(100.0)
Graduate school	2(40.0)	1(20.0)	2(2.4)	2(40.0)			5(100.0)
Others	23(22.5)	57(55.9)	2(2.0)	20(19.6)			102(100.0)
Total	377(65.2)	85(14.7)	25(4.3)	82(14.2)	4(.7)	5(.9)	578(100.0)
$\chi^2(df) = 205.602(20), p = .000$							
Type of family							
Unclear family	325(63.1)	82(15.9)	22(4.3)	77(15.0)	4(.8)	5(1.0)	515(100.0)
Expanded family	53(84.1)	2(3.2)	3(4.8)	5(7.9)			63(100.0)
Total	378(65.4)	84(14.5)	25(4.3)	82(14.2)	4(.7)	5(.9)	578(100.0)
$\chi^2(df) = 13.148(5), p = .022$							
Type of house							
Apartment	176(64.9)	16(5.9)	9(3.3)	64(23.6)	2(.7)	4(1.5)	271(100.0)
Separate	180(81.4)	13(5.9)	12(5.4)	13(5.9)	2(.9)	1(.5)	221(100.0)
Tenement	11(15.5)	55(77.5)	2(2.8)	3(4.2)			71(100.0)
Others	12(66.7)	1(5.6)	2(11.1)	3(16.7)			19(100.0)
Total	37(65.2)	8(14.6)	2(4.3)	3(14.3)	(.7)	(.9)	58(100.0)
$\chi^2(df) = 293.394(15), p = .000$							
Residential district							
City	290(63.5)	76(16.6)	15(3.3)	69(15.1)	2(.4)	5(1.1)	457(100.0)
Fishing village	12(50.0)	2(8.3)	2(8.3)	8(33.3)			24(100.0)
Farm village	67(78.8)	6(7.1)	7(8.2)	4(4.7)	1(1.2)		85(100.0)
Others	9(64.3)	1(7.1)	1(7.1)	2(14.3)	1(7.1)		14(100.0)
Total	37(65.2)	8(14.7)	2(4.3)	8(14.3)	(.7)	(.9)	58(100.0)
$\chi^2(df) = 36.988(15), p = .001$							

Table 3. Dietary life behavior by subjects(eating out behavior)

Variable	Korean-style food	Chinese-style food	Japanese-style food	Western-style food	Flour food	Total
Sex						
Male	278(81.5)	17(5.0)	15(4.4)	17(5.0)	14(4.1)	341(100.0)
Female	197(78.2)	5(2.0)	4(1.6)	29(11.5)	17(6.7)	252(100.0)
Total	475(80.1)	22(3.7)	19(3.2)	46(7.8)	31(5.2)	593(100.0)
$\chi^2(df) = 47.890(5), p = .000$						
Age						
Under 21	46(55.4)	2(2.4)	9(5.6)	29(34.9)	6(7.2)	83(100.0)
21~30	129(80.6)	8(5.0)	4(2.8)	7(4.4)	7(4.4)	160(100.0)
31~41	121(84.6)	5(3.5)	5(4.2)	7(4.9)	6(4.2)	143(100.0)
41~50	95(79.8)	5(4.2)	1(1.1)	2(1.7)	12(10.1)	119(100.0)
Over 51	84(95.5)	2(2.3)	19(3.2)	1(1.1)		88(100.0)
Total	475(80.1)	22(3.7)		46(7.8)	31(5.2)	593(100.0)
$\chi^2(df) = 122.842(16), p = .000$						
Education						
High school	171(79.5)	9(4.2)	10(4.7)	8(3.7)	17(7.9)	215(100.0)
In University	131(70.4)	8(4.3)	5(2.7)	34(18.3)	8(4.3)	186(100.0)
University	72(86.7)	2(2.4)	3(3.6)	2(2.4)	4(4.8)	83(100.0)
Graduate school	3(60.0)		1(20.0)	1(20.0)		5(100.0)
Others	96(95.0)	3(3.0)		1(1.0)	1(1.0)	101(100.0)
Total	47(80.2)	2(3.7)	1(3.2)	4(7.8)	3(5.1)	59(100.0)
$\chi^2(df) = 63.942(16), p = .000$						
Type of family						
Unclear family	418(81.2)	17(3.3)	15(2.9)	36(7.0)	29(5.6)	515(100.0)
Expanded family	56(74.7)	5(6.7)	3(4.0)	9(12.0)	2(2.7)	75(100.0)
Total	474(80.3)	22(3.7)	18(3.1)	45(7.6)	31(5.3)	590(100.0)
$\chi^2(df) = 5.836(4), p = .212$						
Type fo house						
Apartment	221(81.0)	6(2.2)	8(2.9)	17(6.2)	21(7.7)	273(100.0)
Separate	176(76.2)	13(5.6)	10(4.3)	24(10.4)	8(3.5)	231(100.0)
Tenement	66(93.0)	1(1.4)		2(2.8)	2(2.8)	71(100.0)
Others	12(66.7)	2(11.1)	1(5.6)	3(16.7)		18(100.0)
Total	475(80.1)	22(3.7)	19(3.2)	46(7.8)	3(5.2)	593(100.0)
$\chi^2(df) = 26.784(12), p = .008$						
Residential district						
Fishing village	376(81.9)	13(2.8)	14(3.1)	33(7.2)	23(5.0)	459(100.0)
Farm village	27(75.0)	2(5.6)		6(16.7)	1(2.8)	36(100.0)
Others	64(76.2)	4(4.8)	5(6.0)	6(7.1)	5(6.0)	84(100.0)
Others	8(57.1)	3(21.4)		1(7.1)	2(14.3)	14(100.0)
Total	475(80.1)	22(3.7)	19(3.2)	46(7.8)	3(5.2)	593(100.0)
$\chi^2(df) = 25.044(12), p = .015$						

다 양식, 일식, 중국식 등 다양한 음식을 외식시 선호하는 음식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른을 모시고 사는 확대가족은 의례적으로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n s).

주거형태별로는 연립주택에 주거하는 주민이 한식(93.%)을 가장 선호하며, 아파트 주거하는 주민은 한식 다음으로 분식(7.7%)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거주지역별로는 도시거주 주민이 한식(81.9%)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하게 어촌 주민이 양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7%). 이는 어촌에서는 늘 생선을 먹을 기회가 많으므로 외식시 먹을 기회가 한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p<.05$).

4. 과메기 선호도

과메기 선호도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성별에 있어 전반적으로 남자(92.6%)가 여자(89.7%)보다 과메기 선호도가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조사대상 주민 57.5%가 '먹을 기회가 있으면 먹는다'로 가장 많았으며, 51세 이상의 연령층(76.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먹을 기회가 있어도 안 먹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나이가 많을수록 적게 나타났다($p<.001$). 과메기에 대해 91.4%가 긍정적인 응답(아주 좋아한다, 좋아한다, 먹을 기회가 있으면 먹는다)을 하여, 조 등(2000)의 연구결과(포항지역 주민, 92.5%)보다는 다소 낮으나 경북지역 주민들도 과메기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졸(19.8%)이 가장 과메기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가족유형별로 살펴보면 핵가족(92.7%)이 확대가족(82.4%)보다 과메기 선호도가 높았다($p<.01$).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연립주택 주민(97.1%), 개인주택 주민(91.7%), 아파트 주민(89.5%) 순으로 과메기 선호도가 높았다($p<.001$).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어촌 주민(96.7%), 도시주민(93.0%), 기타주민(84.6%), 농촌주민(82.1%) 순으로 과메기 선호도가 높았다($p<.01$).

5. 과메기 먹는 때

과메기 먹는 때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술안주로 먹는 경우(87.0%)가 여자(46.8%)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이는

여자는 과메기를 간식(35.3%)으로도 많이 먹기 때문이다($p<.001$). 연령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술 먹을 때 안주(71.1%)로 먹는 경우가 많으나 연령층이 높을수록 간식(17.8%)으로 먹는 경우가 많았다($p<.001$). 학력별로 살펴보면 기타에서 술안주(37.6%)보다 간식으로(59.4%)으로 먹는 경우가 높았다($p<.001$).

가족유형별로 살펴보면 핵가족이 확대가족보다 과메기를 술안주와 간식으로 먹는 비율이 높았다($p<.001$).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과메기를 술안주로 먹는 아파트 주민(80.2%), 개인주택 주민(76.1%), 연립주택 주민(20.0%) 순으로 나타났으며, 간식으로는 연립주택(77.1%), 아파트(11.85), 개인주택(5.5%)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과메기를 술안주로 먹는 주민은 농촌(84.5%), 어촌(78.3%), 도시(68.8%)순으로 나타났다. 간식으로 먹는 주민은 도시(20.3%), 어촌(8.7%), 농촌(4.2%)으로 도시주민이 과메기를 간식으로 먹는 경우가 많았다. 조 등(2000)의 연구결과(포항주민 간식으로 먹는 경우 : 전체 8.4%, 남자 6.6%, 여자 16.2%)보다 간식으로 먹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도시 주민가운데 특히 여자가 과메기를 간식(35.3%)으로 먹는 경우가 많았다.

6. 과메기 1회 먹는 양

과메기 1회 먹는 양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성별에 따른 과메기 1회 먹는 양은 보편적으로 남자가 가장 많았으며 3~10마리 정도의 양을 61.1%가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1회에 1~2마리(53.7%)를 가장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마리 이상 먹는 남녀는 별 차이가 없었다($p<.001$).

연령별로 살펴보면 51세 이상 고령층의 64.8%가 1회 먹는 양이 1~2마리로 가장 적게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연령층은 대부분 1회 먹는 양이 3~10마리로 나타났다. 20마리 이상(1두릅) 많이 먹는 연령층은 30세 이하의 젊은 층으로 나타났다($p<.001$).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졸이 1회 먹는 양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가족유형별인 핵가족, 확대가족간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개인주택에 주거하는 주민의 19.0%가 1회 먹는 양이 11~20마리 미만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립주택 주거하는 주민의 81.4%가 1회 먹는 양이 1~2마리로 가장 낮았다($p<.001$).

거주지역별로는 어촌주민이 과메기를 많이 들지 않

Table 4. Degree of preference of Kwamaegi

Variable	Very well	Well	Want eat if have chance	Do not eat even if have chance	Total
Sex					
Male	56(16.5)	104(30.6)	155(45.6)	25(7.4)	340(100.0)
Female	24(9.9)	14(5.8)	180(74.1)	25(10.3)	243(100.0)
Total	80(13.7)	118(20.2)	335(57.5)	50(8.6)	583(100.0)
$\chi^2(df) = 69.083(3), p = .000$					
Age					
Under 21	15(19.7)	4(5.3)	46(60.5)	11(14.5)	76(100.0)
21~30	23(14.6)	35(22.3)	85(54.1)	14(8.9)	157(100.0)
31~40	16(11.2)	33(23.1)	79(55.2)	15(10.5)	143(100.0)
41~50	20(16.8)	33(27.7)	58(48.7)	8(6.7)	119(100.0)
Over 51	6(6.8)	13(14.8)	67(76.1)	2(2.3)	88(100.0)
Total	80(13.7)	118(20.2)	335(57.5)	50(8.6)	583(100.0)
$\chi^2(df) = 36.302(12), p = .000$					
Education					
High school	37(17.2)	58(27.0)	98(45.6)	22(10.2)	215(100.0)
In University	27(15.3)	26(14.7)	114(64.4)	10(5.6)	177(100.0)
University	8(9.9)	21(25.9)	36(44.4)	16(19.8)	81(100.0)
Graduate school	1(20.0)		4(80.0)		5(100.0)
Others	6(5.9)	12(11.8)	82(80.4)	2(2.0)	102(100.0)
Total	79(13.6)	117(20.2)	334(57.6)	50(8.6)	580(100.0)
$\chi^2(df) = 60.004(12), p = .000$					
Type of family					
Unclear family	74(14.6)	107(21.1)	288(56.9)	37(7.3)	506(100.0)
Expanded family	6(8.1)	10(13.5)	45(60.8)	13(17.6)	74(100.0)
Total	80(13.8)	117(20.2)	333(57.4)	50(8.6)	580(100.0)
$\chi^2(df) = 11.899(4), p = .008$					
Type of house					
Apartment	28(10.5)	64(24.1)	146(54.9)	28(10.5)	266(100.0)
Separate	45(19.7)	47(20.5)	118(51.5)	19(8.3)	229(100.0)
Tenement	4(5.7)	5(7.1)	59(84.3)	2(2.9)	70(100.0)
Others	3(16.7)	2(11.1)	12(66.7)	1(5.6)	18(100.0)
Total	80(13.7)	118(20.0)	335(57.5)	50(8.6)	583(100.0)
$\chi^2(df) = 34.633(9), p = .000$					
Residential district					
City	53(11.6)	98(21.5)	272(59.8)	32(7.0)	455(100.0)
Fishing village	7(23.3)	4(13.3)	18(60.0)	1(3.3)	30(100.0)
Farm village	18(21.4)	12(14.3)	39(46.4)	15(17.9)	84(100.0)
Others	2(15.4)	4(30.8)	5(38.5)	2(15.4)	13(100.0)
Total	80(13.7)	118(20.3)	334(157.4)	50(8.6)	582(100.0)
$\chi^2(df) = 24.762(9), p = .003$					

Table 5. The time of eating Kwamaegi

Variable	Served with drink	Dish	Snack	Others	Total
Sex					
Male	289(87.0)	15(4.5)	21(6.3)	7(2.1)	332(100.0)
Female	102(46.8)	4(1.8)	77(35.3)	35(16.1)	218(100.0)
Total	391(71.1)	19(3.5)	98(17.8)	42(7.6)	550(100.0)
$\chi^2(df) = 128.355(3), p = .000$					
Age					
Under 21	35(51.5)		3(4.4)	30(44.1)	68(100.0)
21~30	124(89.9)	6(4.3)	4(2.9)	4(2.9)	138(100.0)
31~41	116(83.5)	9(6.5)	13(9.4)	1(.7)	139(100.0)
41~50	87(74.4)	3(2.6)	22(18.8)	5(4.3)	117(100.0)
Over 51	29(33.0)	1(1.1)	56(63.6)	2(2.3)	88(100.0)
Total	391(71.1)	19(3.5)	98(17.8)	42(7.6)	550(100.0)
$\chi^2(df) = 309.418(12), p = .000$					
Education					
High school	161(80.9)	12(6.0)	14(7.0)	12(6.0)	199(100.0)
In University	119(73.9)	3(1.9)	12(7.5)	27(16.8)	161(100.0)
University	66(81.5)	3(3.7)	11(13.6)	1(1.2)	81(100.0)
Graduate school	4(80.5)		1(20.0)		5(100.0)
Others	38(37.6)	1(1.0)	60(59.4)	2(2.0)	101(100.0)
Total	388(70.9)	19(3.5)	98(17.9)	42(7.7)	547(100.0)
$\chi^2(df) = 175.009(12), p = .000$					
Type of family					
Unclear family	35(71.1)	17(3.4)	95(19.2)	31(6.3)	494(100.0)
Expanded family	37(69.8)	2(3.8)	3(5.7)	11(20.8)	53(100.0)
Total	388(70.9)	19(3.5)	98(17.9)	42(7.7)	547(100.0)
$\chi^2(df) = 18.015(3), p = .000$					
Type of house					
Apartment	210(80.2)	11(4.2)	31(11.8)	10(3.8)	262(100.0)
Separate	153(76.1)	6(3.0)	11(5.5)	31(15.4)	201(100.0)
Tenement	14(20.0)	1(1.4)	54(77.1)	1(1.4)	70(100.0)
Others	14(82.4)	1(5.9)	2(171.8)		17(100.0)
Total	391(71.1)	19(3.5)	98(17.8)	42(7.6)	550(100.0)
$\chi^2(df) = 218.286(9), p = .000$					
Residential district					
City	305(68.8)	14(3.2)	90(20.3)	34(7.7)	443(100.0)
Fishing village	18(78.3)	2(8.7)	2(8.7)	1(4.3)	23(100.0)
Farm village	60(84.5)	2(2.8)	3(4.2)	6(8.5)	71(100.0)
Others	7(58.3)	1(8.3)	3(25.0)	1(8.3)	12(100.0)
Total	390(71.0)	19(3.5)	98(17.9)	42(7.7)	549(100.0)
$\chi^2(df) = 16.110(9), p = .065$					

Table 6. The number of intaking Kwamaegi at a table

Variable	1~2	3~10	11~20	Over 20	Total
Sex					
Male	50(15.1)	23(61.1)	63(19.0)	16(4.8)	332(100.0)
Female	122(53.7)	86(37.9)	12(5.3)	7(3.1)	227(100.0)
Total	172(30.8)	289(51.7)	75(13.4)	23(4.1)	559(100.0)
$\chi^2(df) = 99.496(3), p = .000$					
Age					
Under 21	23(31.9)	32(44.4)	13(18.1)	4(5.6)	72(100.0)
21~30	27(19.1)	95(67.4)	11(7.8)	8(5.7)	141(100.0)
31~40	43(30.5)	76(53.9)	18(12.8)	4(2.8)	141(100.0)
41~50	22(18.8)	64(54.7)	26(22.2)	5(4.3)	117(100.0)
Over 51	57(64.8)	22(25.0)	7(8.0)	2(2.3)	88(100.0)
Total	172(30.8)	289(51.7)	75(13.4)	23(4.1)	559(100.0)
$\chi^2(df) = 80.362(12), p = .000$					
Education					
High school	35(17.7)	117(59.1)	35(17.7)	11(5.6)	198(100.0)
In University	52(30.1)	89(51.4)	24(13.9)	8(4.6)	173(100.0)
University	25(31.6)	44(55.7)	8(10.1)	2(2.5)	79(100.0)
Graduate school	3(60.0)	1(20.0)	1(20.0)	2(2.0)	5(100.0)
Others	56(55.4)	36(35.6)	7(6.9)		101(100.0)
Total	171(30.8)	287(51.6)	75(13.5)	23(4.1)	556(100.0)
$\chi^2(df) = 50.359(12), p = .000$					
Type of family					
Unclear family	149(30.0)	263(53.0)	64(12.9)	20(4.0)	496(100.0)
Expanded family	23(38.3)	25(41.7)	10(16.7)	2(3.3)	60(100.0)
Total	172(30.9)	288(51.8)	74(13.3)	22(4.0)	556(100.0)
$\chi^2(df) = 3.159(4), p = .368$					
Type fo house					
Apartment	76(29.0)	143(54.6)	31(11.)	12(4.6)	262(100.0)
Separate	36(17.1)	125(59.5)	40(19.0)	9(4.3)	210(100.0)
Tenement	57(81.4)	9(12.9)	2(2.9)	2(2.9)	70(100.0)
Others	3((17.6)	12(70.6)	2(11.8)		17(100.0)
Total	172(30.8)	289(51.7)	75(13.4)	23(4.1)	559(100.0)
$\chi^2(df) = 109.208(12), p = .000$					
Residential district					
Fishing village	139(31.5)	224(50.8)	61(13.8)	17(3.9)	441(100.0)
Farm village	16(45.7)	12(34.3)	6(17.1)	1(2.9)	35(100.0)
Others	15(21.4)	44(62.9)	6(8.6)	5(7.1)	70(100.0)
Total	2(16.7)	8(66.7)	2(16.7)		12(100.0)
Total	172(30.8)	288(51.6)	75(13.4)	23(4.1)	558(100.0)
$\chi^2(df) = 13.698(9), p = .133$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회 등을 자주 먹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또한 1회 먹는 양이 11~20마리 미만에서 17.1%로 가장 높았으나 1~2마리로 적게 먹는 양도 45.7%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과메기 1회 먹는 양은 조 등(2000)의 연구결과(포항주민 1회 먹는 양 : 3~10마리, 남자 63.8%, 여자 50.0%)에서의 포항지역 주민보다 전반적으로 적었으며 특히 여자가 더 적었다.

요 약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행동과 콩치과메기의 기호도 및 섭취 빈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65.2%가 맛 그 다음이 영양가 14.6%, 청결성 14.3%, 가격 4.3%, 칼로리 0.7% 순으로 음식 선택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있어 남자는 맛을 가장 선호하고 청결성, 영양가, 가격의 순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여자는 맛 다음으로 영양가(25.4%)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청결성, 가격 순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영양가에 관심을 두며, 칼로리는 학생층에서 91.7%나 높은 관심을 보였다. 농촌주민은 맛에, 어촌주민은 청결성에, 도시주민은 영양가에 다른 거주지역 주민보다 음식선택시 큰 관심을 특히 어촌은 식중독 등의 위험에 대한 정보를 상시 접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외식시 선호 음식은 남(81.5%), 여(78.2%) 모두 한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한식을 선호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양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젊은 층에서의 양식선호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한식(95.0%)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가족은 한식과 분식을 선호하며 어른을 모시고 사는 확대가족이 외식시 양식, 일식, 중국식 등 다양한 음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주거형태별로는 연립주택 주민의 93.0%가 한식을 가장 선호하며, 아파트 주민은 한식 다음으로 분식을 선호하였다. 거주지역별로는 도시주민이 한식(81.9%)을 가장 선호하며 어촌주민은 특히 외식시 양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콩치과메기에 대하여 91.4%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경북지역 주민은 과메기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메기를 먹는 때는 71.1%가 술안주로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 주민 20.3%가 과메기를 간식으로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술안주로서 과메기가 아니라 콩치과메기가 향토 식품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조리방법의 개발 등을 통하여 반찬으로나 간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4. 과메기 1회 먹는 양은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히 많았다. 대부분 3~10마리를 1회에 먹으며 30세 이하에서는 67.4%정도가, 남자의 61.1%가 3~10마리 정도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53.7%가 1~2마리 정도를 1회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1회에 20마리 이상(1두릅) 많이 먹는 연령층은 30세 이하의 젊은 층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별로는 개인주택 주민이 1회 먹는 양이 가장 많았다.

참고문헌

1. 조재선 : 우리 나라 식생활 문화연구의 어제와 오늘, *한국식품화학학회지* 10(3), 213 (1995).
2. 윤서석 : 한국의 자연과 식생활, *한국식품화학학회지* 10(3), 203 (1995).
3. 오승희, 김덕진 : 건조조건에 따른 콩치과메기의 핵산류, 유리아미노산의 변화, *한국식품영양학회지* 11(2), 249~255 (1998).
4. Hideo, T. : Eicosapentaenoic acid and docosahexaenoic acid in marine animal lipids, *Japan Eiyogaku Zasshi*, 42(2), 81 (1984).
5. 오승희, 김덕진, 최경호 : 콩치과메기의 건조조건에 따른 Amine의 변화, *한국식품영양학회지* 11(1), 47~61 (1998).
6. 조영대, 김정애 : 지역특화산업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포항과메기 소비자의 선호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호텔경영학회 1999년도 추계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47~61 (1999).
7. 조영대, 김정애, 오승희 : 포항지역 주민 콩치과메기 기호도 조사, *한국식품영양학회지* 13(3), 255~262 (2000).

(2000년 12월 10일 접수)